

진흥회 활동

96전자부품 구매액 10조 1,254억원



본회는 전자부품업계의 판로 개척과 국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셋트업체의 '96년 전자부품 구매계획 세미나를 지난 1월 19일(금)14시에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에서 전자부품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10개 주요 셋트업체 구매부서가 나와 올해 전자부품 구매계획과 수입부품의 국산개발 채용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주요 10개 셋트업체가 올해 구매할 전자부품은 모두 10조 1,254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76.2%인 7조 7,156억원을 국산 전자부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23.8%는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 구매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삼성전자로서 4조 3,680억원이며, 그 다음 LG전자는 3조 3,436억원, 대우전자는 1조 5,25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트별로는 C-TV용이 약 2

조 3,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모니터용으로 2조 700억원, VCR용이 약 1조 6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부품 구매비율이 큰 품목은 페이저로서 58.9%, 다음은 휴대폰 49.8%, 교환기가 41.1% 등으로 대부분 통신기기로 나타났으며, 냉장고, 청소기 등은 10% 미만이고 C-TV, 전자렌지, 세탁기 등은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수요가 큰 전자부품은 커넥터, 소형모터, IC, 축전기, 튜너, 써미스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업계는 올해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고 보고 이들 전자부품의 국산개발을 한층 더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진흥회는 이들 국산 개발 대상부품(수입)의 견본품을 전시하고, 또 품목별 수요량 등 국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부품업계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2page 참조)

'95년도 정보통신분야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 점검 및 '96년도 중점추진대상 과제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보통신분야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중간점검결과가 나왔다. 본회(회장 구자학)는 '95년 한해 동안 주력해온 행정규제완화 추진사업을 주요과제별로 성과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진흥회가 회원사와 함께 추진한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의 성과는 총 41

건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민정부 들어서 적극 추진해온 규제완화 사업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행정쇄신위원회의 연장운동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보통신부의 발족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정보통신부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즉,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법규정비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시대의 조류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 부응하려고 노력한 점이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자공업진흥회는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5년 2월에 전자·통신업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분야 행정규제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6개 개선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통상산업부내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행정쇄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진흥회내의 통신산업협의회 및 CATV기기 산업협의회 등 해당분야의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의하기도 했다.

'95년도에 이루어진 주요 행정규제완화 실적을 살펴보면 이동전화가입설비비 650,000원의 폐지 결정(96.2부터 시행),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의 개선 시행(95.1부터 시행), 통신사업에 대한 전면 경쟁체제 도입, 통신설비제조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폐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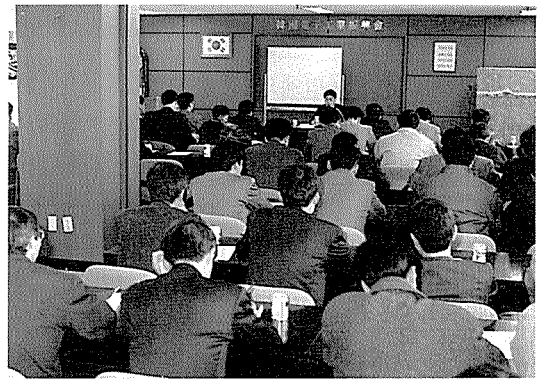
'96년에도 진흥회는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동전화에 대한 허가제 폐지 등 무선국허가제도에 대한 전면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연구·건의하고, 각종 형식승인 및 전자파 장애검정, 무선기기형식검정 등 검사검정제도의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의 수립

추진, 각종 통신기기 보급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 및 투자기관의 구매제도가 다가오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구매제도를 연구·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흥회는 9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행정규제 및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세부과제를 전면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CATV전송장비 규격 검토를 위한 제안 설명회



본회는 지난 1월 19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대령정밀 한승철 부장 등 25개사 48명이 참석 CATV 전송장비 규격 검토를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통신 CATV사업국 이수과장이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데 450, 550, 750MHz 장비별 가격대비표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기 개발된 제품 및 향후 2~3

개월내에 개발할 수 있는 제품범위 내에서 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한국통신은 ITU 등 국제규격을 우선하며 그 다음이 국내 표준 규격을 따르고 국내 표준 규격도 없는 경우 사내표준을 따를 것임을 밝혔다.

전자·정보산업 증장기 수요예측 발표

본회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전자정보산업 증장기 수요예측」에 따르면 국내 전자정보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559억달러에서 오는 2000년에는 1,025억달러, 2005년에는 1,680억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95년 450억 달러에서 2000년 720억달러 2005년 1,19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평균 11.7%의 신장이 예상됐고 내수는 95년 417억달러에서 2000년 785억달러, 2005년에는 1,2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도 크게 증가 95년 251억달러에서 2000년 480억달러 2005년 785억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11.6%의 증가율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세계 전자정보산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현재 미국·일본·독일에 이은 세계 4위에서 200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액기준에 의한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은 93년 4.7%에서 2000년 9.7% 2005년 12.1%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정보화사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화·초집적화 등의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제품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본회는 앞으로 10년내 국내외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부상할 대표적인 품목으로 디지털비디오

디스크(DVD) 플레이어와 고선명(HD)TV, 휴대형 단말기(PDA), TV전화, 대형LCD(액정박판표시장치), 초소형 장수명 무공해 전지 등을 꼽았고 국내 전자정보산업이 정보통신산업 위주로 바뀌면서 고정밀 전자부품 및 소재·소프트웨어는 국산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면 저급 가전제품과 영상기·범용전자부품 등은 국산중심에서 수입품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에 의한 전자정보산업의 기준에 의한 전자정보산업의 제조업 비중은 현재 11%에서 2000년 16.1%, 2005년 20.0%로 늘어나고 총수출 비중은 94년 30%에서 2000년에는 43%, 2005년에는 절반수준인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의료기기산업協, 해외시장 개척 적극 추진

본회의 전자의료기기 산업협의회는 국산전자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바이어를 초청, 「국산 의료기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96」 기간중인 오는 3월 8일 국내 각 전자의료기기업체의 외국대리점 사장 및 외국 의료기기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는 3월말께 유럽시장 진출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CE마크 등 외국의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자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자의료기산업협의회는 국내 전자 의료기기산업 현황과 업체 및 생산제품을 소개한 영문 홍보책자(ME of Korea)를 최근 발행하고 전 회원사와 해외무역관·수출상사·주한 각국 대사관 및 각종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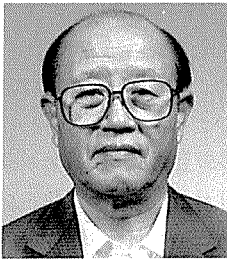
메디슨·중외메디칼 등 대스리랑카 대중국 의료기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 컨소시엄의 주관사들은 올해를 EDCF를 이용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원년으로 정하고 이의 빠른 실현을 위해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와 중국 등 작업이 비교적 순탄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1차 수출물량을 선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국산 전자의료기기 대량수출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세인전자·한신메디칼·삼성GE의료기기·서울센트랄상사 등 전자의료기기 업체들도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세계유명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 대리점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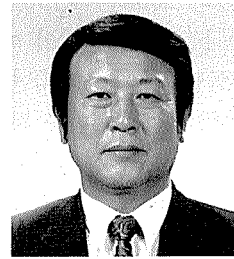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 제 일 물 산



대표이사 : 정 인 화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6-7
 전화번호 : 032)814-9000
 FAX : 032)814-9005
 설립일자 : 1977. 9. 9
 자본금 : 6억원
 종업원수 : 140명
 주생산품목 : 전자부품(Switch, Volume) 소방기구(소방호수, 금속구)

영 화 기 공 (주)



대표이사 : 이 강 윤
 주소 : 충남 천안시 직산면 부송리 72-19
 전화번호 : 0417)567-9001
 FAX : 0417)568-8300
 설립일자 : 1985. 4. 15
 자본금 : 1억
 종업원수 : 32명
 주생산품목 : Lead-Pin, Lead-wire 등